

홍콩 섬유 현황

-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구·일’에서 모두 역풍 받고 있어

홍콩에는, 요즘 중국 본토의 관광객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홍콩의 고급 브랜드 숍(高級 brand shop)이나 레스토랑(restaurant)에서는 관광객의 지갑에 의지하고 있다. 개발 러시(개발 rush)가 계속되고 있는 홍콩은 활황을 보이고 있는데, 어패럴이나 섬유 소재 판매는 미국 시장의 경기가 나빠지더니 마침내 상품 판매가 끊어졌으며, 일본으로의 수출 계약 성립도 늦어지는 등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2008년 가을에 서브 프라임 론(sub-prime loan) 문제가 사회 문제로 되면서,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小賣)나 어패럴을 구입하려는 마음가짐이 대단히 신중하게 되었다.”고 미국으로 어패럴을 수출하고 있는 일본계 상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홍콩으로부터 2009년 1월~7월 동안의 의류 및 부속품 수출은 1,205억 홍콩 달러(재수출을 포함하여 약 1.7兆 円)이며, 2008년 1~7월과 비교하면 2.1% 줄어, 약간 줄었지만 “수출 계약 성립과 선적에 시차(時差)가 있어서 앞으로 숫자에서 차이를 보일 것 같다.”고 관계자는 보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은 2008년 추동 상품부터 나타나고 있다. 원래는 끝났어야 하는 2009년 춘하 상품의 가격을 낮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도 나타나고 있다. 발주 로트(發注 lot)도 작아졌고, 나타난 숫자 이상으로 심하게 나빠졌다고 느끼게 된 것 같다. 구주로의 수출도 활기가 없다. 영국, 스페인을 포함하여 독일의 경기가 특히 심각하게 식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감돌고 있던 불경기 여파가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불경기는 섬유 비즈니스에도 파급되고 있다. 섬유 메이커가 몰려 있는 화남 지구(華南地區)는 커다란 원료 시장이기도 한데, 면사나 합섬사 등의 소재 상담이 줄줄이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니터(knitter)용의 정번적인 면사 및 스판덱스, 모사는 “계약이 성립된 수량 베이스(數量 base)로 2008년과 비교하면 20~30% 줄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므로 정번이 아닌 상품으로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방향을 분명하게 바꾸고 있다. 어

패럴 수출이 뜻 떨어짐으로서 소재의 수요가 줄고 있는데, 시장도 주변국으로 넓히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최종 시장은 유럽이나 미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담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다른 한편인 일본으로의 수출도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홍콩이나 화난(華南)에서의 생산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이미 발을 돌려 화둥(華東)이나 산둥성(山東省)으로 바꾼 데가 많다. 그러나 화난(華南)에서의 생산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바이어(buyer)들은 지금도 발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유명(prominent) 어패럴’에서는 말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불경기와는 다르게 보고 있는 의견도 있다.

홍콩은, 주요 거래 대상인 미국, 유럽, 일본의 시장들이 역풍(逆風 : 마주 불어 안고 가는 바람)을 받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구미 기업을 중심으로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을 찾는 움직임은 여전하며, 홍콩은 그 게이트웨이(gateway : 出入門)로 될 수가 있다.”고 하며, 사령탑(司令塔) 역할을 하고 있는 홍콩의 장래를 낙관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 PAL(유명 어패럴 : Prominent Apparel)은 베트남과 방글라데시를 가장 유력한 나라로 보고 두 나라의 생산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다른 기업도 베트남에 이어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로 주문을 늘리기 시작하였다.

엔 아이 데이진 상사(NI 帝人 商事) 홍콩은 유럽 시장으로 목표를 줄이고, 베트남 생산으로 주문을 받고 있는데, 베트남 생산도 한계가 있어 베트남 플러스 원(Vietnam plus one)도 찾고 있다. 중국으로만 기울어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중·고급 레인지(中·高級 range)를 원하는 고객에게, 어떻게 적절한 생산지를 제안하고 제공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 같다.♣